

보잉, 중국에 항공기 정비 중 TAECO와 공동제휴

미국의 보잉사는 중국의 Taikoo Aircraft Engineering Co. Ltd.(TAECO)는 지난 8월 11일 항공기 정비와 개조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1천1백만 달러의 투자로 보잉사는 TAECO의 9.1%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TAECO는 앞으로 주로 보잉 737, 747, 757 등의 오버 홀 정비와 수리를 특화 시킬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이번 보잉사의 합작으로 보잉사의 주요 고객사인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싱가포르 에어라인, JAL 그리고 중국 민항(해석확인요망!!)(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등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잉사는 전망하고 있다.

보잉사 상용기 부문의 체프 튜너 부사장은 "TAECO사는 앞으로 연 13대의 747의 화물기 개조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개조사업에는 개조를 위한 키트(kit)를 설계 및 제작하고, 감독할 보잉사의 기술진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 보잉사의 수리정비사업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AECO사의 P. K Chan 전무는 보잉사와의 계약을 통해 TAECO의 개조 Capacity

의 확장뿐 아니라 개조할 기종의 증가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사의 'Current Market Outlook'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TAECO의 주요 고객사인 아시아지역의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비 및 노후기의 개조 물량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보잉, 45대 헬기수주 MD600N, 7천만불 상당

보잉사가 美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로부터 최신헬기인 MD600N기종 45대를 수주 받았다.



맥도널더글라스가 보잉사로 합병되자마자 헬기사업으로는 비교적 큰 계약이 체결됐다. 사진은 MD600N 헬기의 모습

동 수주는 헬기와 스페어부품 및 기술지원까지 합쳐 약 7천1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동 기종은 기존의OH-6A헬기를 대체하여 캘리포니아와플로리다 사이의 미 경계선 정찰업무를 담당하게된다.

이번 계약은 보잉사로써는 20년 만에 가장 큰 상용헬기계약으로 기록됐다. 그 동안 군 헬기 수요는 많았으나 대량으로 상용헬기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MD600N의 첫 인도는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5년간 9대씩 조달하게 된다.

MD600N은 꼬리날개가 없는 NOTOR기종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높은 신뢰도와 적은 직접비용으로 다른 기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한편, 안전성과 저소음이 우수한 NOTOR 시스템은 1991년 이래 MD600N을 비롯한 3개 기종에 사용되어 왔으며 125,000시간 비행중 이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美 록히드, 상용 전자부문 매각

미국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는 지난 8월 11일 동사의 상용 전자부문을 Manufacturer's Service Ltd.

에 매각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경 밝혔던 내용으로 그 동안 많이 알려지지 는 않았다.

이번 매각으로 Manufacturer's Service Ltd.는 전세계 8위의 전자용품제작서비스사에서 4위로 쟁쟁뛰어 올랐으며 10억달러의 매출을 금년에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록히드사의 약 700명의 상용전자부문 종업원을 모두 Manufacturer's Service Ltd.로 흡수될 것으로 예정됐다.

에어버스, A340파생기종 첫 판매에어캐나다, 13대 계약

에어캐나다(Air Canada)항공사가 에어버스사 A340의 파생기종인 A340-600 및 -500 를 구매기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에어캐나다는 에어버스사의 A340-600 및 -500의 런치커스터머가 되었다.

이번 계약에서 에어캐나다는 5대의 A330-300(엔진2개)과 3대의 A340-300을 주문하면서 내년 3월에 신기종인 A340-500 및 -600 5대를 주문기로 결정했다. 또한, 에어캐나다사에 이어 Britain's Virgin Atlantic 항공사는 총 250억 달러에 달하는 16대의 A340-600과 2대의 A340-300 기종을 주문했다.

지난 파리어쇼에서 에어버스사는 A340-600 및 -500기종의 런치커스터머를 찾기위해 대대적인 마케팅활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장 피어슨(Jean Pierson)전무는 "A340-600 및 -500기종 개발은 약 2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런치커스터머는 오는 9월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두 기종은 4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보잉의 777 및 747의 경쟁기종이다. A340-600의 경우 A340의 연장형 기종으로 3클래스 기준으로378명의 승객을 수용하며 항속거리는 7천3백마일이다. 20ft의 동체연장으로 날개면적과 연료탑재량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한편, A340-500의 경우 항속거리를 8천3백마일을 증가시킨 기종으로 313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 기종 모두 英 롤스로이스사의 56천lb 급Trent500엔진 4

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카다로그 가격은 -600이 1억 5천8백만 달러, -500이 1억 4천 4백만 달러이다. 오는 2001년 가을 -600의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 A340인 -200 및 -300기종은 각각 261명과 295명을 수용하고 7천2백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어버스사는 8천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진 A340-8000기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시아, 미국의 최고 항공기 시장

아시아 지역이 미국 항공기 수출시장에서 최고의 고객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아시아 시장은 미국 항공우주산업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 수출 판매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 항공우주협회가 밝혔다.

1993년까지 미국 항공우주시장에서는 유럽이 최고 고객이었다.



에어버스의 A340기종이 보잉의 747 및 777기종과 과연 얼마나 경쟁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지역이 유럽보다 연평균 10억 달러나 많이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4백억 달러의 수출액 중 33%를 아시아 커스터머가 수입했다.

中, 보잉777엔진에 GE 90선정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은 중국-미국의 논스톱 항로를 신설하면서 이 노선에 미 제네럴 일렉트릭(GE)사의 GE90엔진을 탑재한 보잉 777기종을 투입했다.

중국남방항공은 전세계 60개국에 90대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광저우-로스앤젤레스 구간을 신설하였다.

동 항공사가 선정한 GE90엔진은 지난 5월 중국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으로부터 쌍발기 운항거리 제한규정(ETOPS)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TOPS의 승인은 항공사가 태평양 횡단 등 유연한 장거리 항공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GE90은 현재 개발된 엔진 중 가장 추력이 강하고, 운용이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77기종에 장착되어 2년간 운용되면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 엔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Dispatch

reliability(엔진결함으로 인해 이륙이 15분 이상 지연 혹은 취소된 비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GE90의 경우 99.97%로 그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

GE70을 장착한 777기종은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British Airways)에서 운용중이며, 에어프랑스(Air France), 컨티넨탈 항공(Continental Airlines) 등 7개항공사가 92대를 주문, 30억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다.

에어버스, 단일업체로 변신해 야...獨 DASA, 강력주장

독일의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사의 비숍(Manfred Bischoff)사장은 거대기업이 된 미국의 보잉사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어버스의 단일업체로 탈바꿈하는 구조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숍사장은 독일의 경제지인 한델스브라트誌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에어버스사는 이들 국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초대형여객기인 A3XX 개발을 위해 현재 미국의 항공우주업체의 참여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어버스의 회원사인 4개국 4개회사는 에어버스의 단일업체로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과연 어느 부문을 에어버스로 넘길 것인지, 보유지분에 대한 자산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숍사장은 “프랑스의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에어버스 문제와 함께 “유럽의 모든 업체는 항공우주산업의 각 부문별을 특화 시켜 유럽 내에서 이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거대 조인트벤처기업이 오는 2003년까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日, 100인승 항공기 제작에 접근 중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국의 프랫앤휘트니(P&W)사와 2만4천lb급의 PW6000엔진을 공동개발 할 예정이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동 프로젝트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지역 간 제트항공기개발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이미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와 글로벌 익스프레스 비즈니스 제트기의 날개를 봄바르

디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80-100석급의 지역간 제트기의 예비설계(Feasible Study)를 상당부분 마친 상태이다. 이와 함께 1998년에는 풍동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걸프스트림 V, 장거리 비행기록 뉴욕 동경간, 논스톱 비행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Gulfstream Aerospace Corp.)사는 지난 8월 22일 걸프스트림 V 기종이 비즈니스기종으로는 최초로 최장거리 뉴욕-동경 논스톱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총 13시간 22분이 걸린 이번 비행에는 41천lb의 연료를 싣고 8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가운데 지난 8월 19일 뉴욕을 출발하여 마하 0.8, 51천ft로 비행, 다음날인 20일 동경에 무사히 도착했다.

걸프스트림사의 빌 보이슈처(Bill Boisture)사장은 "걸프스트림은 장거리 대용량 비즈니스기로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이번 비행은 걸프스트림V의 성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동 기종은 1,400회의 비행과 3,100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걸프스트림V

는 LA-런던간을 지난 4월 7일 9시간을 비행, 비즈니스기종으로서의 장거리 신기록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동 기종은 런던 홍콩간 논스톱 비행에서 12시간 3분의 비행으로 기록을 갱신했으며 지난 4월 14일에는 동경-뉴욕간을 마하 0.83의 속도로 12시간 41분을 비행하여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비행은 동경-뉴욕간 비행보다 속도가 다소 낮으면서 항속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가 더 긴 비행이었다.

동인항공, 민수용 무인항공기 시판

동인항공이 무인항공기를 민간 사업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한다.

동인항공은 지난 12일 '매직아이'라는 이름의 무인항공기를 방송촬영용, 산림감시용, 어군탐지용, 경찰용 등으로 민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무인항공기에 최대 100개소의 경유지에 관한 고도, 속도, 임무 등을 입력시킬 경우 스스로 정찰, 살포, 영상전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조종도 가능하다. 매직아이는 고도 1,000m에서 차량크기를 인지할 수 있는 탐지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항공기는 무게 92kg에 길이와 폭이 각각 3m인 프로펠러기로 약40m의 공간만 있으면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할 수 있다. 순항속도는 시속 130km이며 최대 비행거리는 시속 450km이다. 이 회사는 지난 96년 무인항공기 개발에 성공한 뒤 그동안 군납을 추진해 왔다.

독 불합작 「뉴코사」 유럽최대 항공사 설립추진

유럽 최대이자 세계3위의 독일-프랑스 합작 우주항공기업이 설립될 것이라고 독일의 경제전문 한델스블라트지가 보도했다.

한델스블라트지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 벤츠 그룹의 도르니어 위성시스템(DSS)사와 프랑스 라가르데르 그룹의 마르타 마르코니 스페이스(MMS)사가 가칭 「뉴코사」사라는 합작기업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코사」사는 우주항공분야에서 매출액 50억 마르크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1백5억마르크), 보잉-로크웰-맥도널 더글라스(80억마르크)에 이어 세계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위성제작분야에서 세계 시장지분의 13%인 29억 마르크로 록히드마틴(64억 마르크)에 이어 휴즈사와 함께 세계2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